

성보로 대신한 '금강산 참배'

국립중앙박물관 8월29일까지 '금강산 특별전'



◇ 최초의 금강산 그림인 '담무갈보살현신도', 고려시대 불화의 대가였던 노영의 작품 (1007년 제작)

특별강연회도 마련

민족의 영산 금강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빼어난 명산중의 하나로 꼽히는 금강산은 기묘묘한 바위와 봉우리, 구비구비 맑은 물이 흐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수목, 춘하추동 계절따라 바뀌는 형형색색의 경관.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 유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과 암자들, 눈길 밟길 닿는 곳마다 간직한 아름다운 전설 등 시대를 초월해 창작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그 결과물은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별반산', '기담산'이란 불교식 명칭으로도 불리워지는 금강산은 지난 6월 남한불자들이 신계사에서의 법회를 봉행한 이후 더욱 불자들이 가까이했다. 진포유사, 나동선사, 서산대사 등 고승 대덕들의 선기가 곳곳에서 번득이는 금강산은 아직 마음대로 가볼수 없는 곳이기에 늘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 사진 혹은 금강산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모습을 그린 이 예배도는 금강산을 불교의 성지로 추앙했던 당시 고려인의 불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 6·25전쟁으로 사라진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등 사찰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리원판 사진 176점이 최초로 공개돼 지금은 볼수 없는 성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더듬어 볼 수 있어 아쉬움을 다소 달래준다. 이중 1919년 촬영된 유점사 능인보전 53불에 대한 유리원판 사진들은 정면 측면 후면을 상세히 촬영하고 각 불상들의 제작시기와 간단한 양식 분류도 시도했는데 통일신라 때 제작된 이들 불상은 소형이면서도 특이하게 법당의 주존으로 봉안돼 있었다고 한다. 또 서산대사 초상, 유점사 청동법종, 강연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을 비롯해 18세기 중반의 화가이자 문필가였던 강세황(1713~1791)의 '표암고'와 김윤호등 근대화가들의 금강산도, 조선시대 민화, 향로, 연적 등도 전시됐다. 표암고는 김종도가 정조의 명을 좇아 금강산으로 그림 그리러 가는 내용과 강세황의

最古 금강산그림 담무갈보살현신도 공개 신계사·유점사등 유리원판사진 옛모습 감상 희귀자료·미공개유물등 6백여점 '하나하나 볼거리'



◇유점사에 주석하던 송문대사 모기(깃발), 1912년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13일부터 8월29일까지 마련한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에는 금강산 관련 불상, 미술·공예품, 사문집, 역사서 등 총 60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현존하는 최초의 금강산 그림인 고려 충렬왕(1307년)때 불화의 대가인 노영이 그린 '금강산담무갈보살현신도'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있다. 금강산에 오른 고려 태조 왕건이 보살 중의 최고존인 담무갈 보살(법기)이 나타나자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는

등정기를 통해 18세기 중반 금강산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고, 금강산 전경을 압축해 나타낸 '청화백자철채산형향로' 등 각종 희귀 자료와 미공개 유물 등이 눈을 즐겁게 한다.

이들 전시물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서울시립박물관,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등 시립박물관, 호암박물관 등 사립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등 대학박물관, 가나화랑등 화랑, 송광사·월정사등 40여곳의 사찰과 30여명의 개인소장가들이 출품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전시회와 함께 금강산과 관련한 특별강연회도 마련했다. 27일에는 정향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학예실장과 이인복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이 각각 '옛 선인들의 금강산기', '금강산의 옛 그림'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8월 10일에는 이호관 전 전주박물관장과 박은순 중앙대교수가 각각 '금강산과 불교미술', '금강산과 진경산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350여점의 금강산 관련 사진과 논문을 수록한 <금강산특별전 도록>(예맥 刊)과 금강산 유리원판 사진 200여 장을 모은 <금강산의 문화유적>(예맥 刊)등도 발간했다. 또 서울 전시회가 끝난 뒤 9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릉시립박물관,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국립강릉박물관에서 순회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은 ▲불교미술품과 공예품에 나타난 금강산 ▲전통회화를 통해 음이해본 금강산 ▲사인묵적들의 기행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금강산 민화를 통해 본 서민들의 꿈과 해약 ▲사진을 통해 본 금강산의 옛 모습 등 크게 다섯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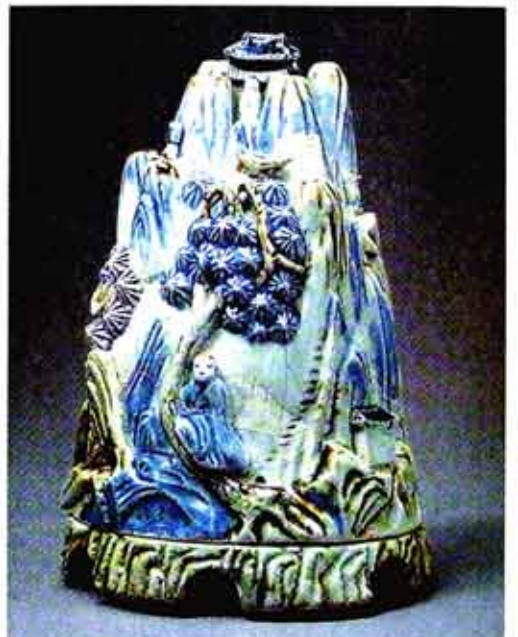
글=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사진제공=도서출판 예맥



◇고려시대(14세기) 조성된 '금동관음보살좌상',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됐다.



◇금강산 월출봉에서 출토된 '이승계발원사리구', 은으로 제작된 사리구 사방에 아래상이 조각되어 있다. (1391년 제작)



◇조선시대(19세기) 제작된 '청화백자철채신형향로', 산봉우리의 계곡 사이사이에 절과 스님, 탑 등이 표현돼 있다.



◇유리원판 사진으로 처음 공개된 유점사 불상들. 유점사 능인보전 앞에 주존으로 봉안돼 있었던 53불중 일부이다. 사진 왼쪽부터 금동동자상, 금동탄생불상, 금동보살상상, 금동여래상상.



◇1912년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으로 보는 신계사 전경. 대웅전 앞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탑이 보인다. 신계사 북쪽에 절고가 둘러싸여 있다.

불교와 금강산

**9세기 이후 곳곳에 사찰건립
고려·조선시대 최고의 수행처**

금강산에서 불교활동이 시작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들어 화엄사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9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이후 금강산에서는 내금강길과 외금강길을 따라 장연사, 금강암,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발연사, 유점사, 신계사 등의 사찰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신계사터, 정연사터, 금강암터 등에서는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석탑이 남아있고 유점사에는 공복 이전까지도 통일신라의 불상을 포함하여 53불로 전해지는 금동불상이 남아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 금강산 왕래가 잦아지고 많은 사찰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려 말기에는 원나라와 고려 왕실의 국운을 기원하면서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매년 100개씩의 암자가 늘어날 정도로 시주의 발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효령대군, 세조, 인목대비 등 왕실의 후원에 의한 중창이 계속되었다. 또 부용선사와 서산대사, 사명당, 편양대사, 종달사 등이 대대로 금강산에서 참선과 화엄학 연구의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스님들이 은둔하여 수차례 '엄불만일회'를 열기도 하였다. 지금도 교계의 원로인 비룡·역암·실산·석주·법흥·월하·화산·법흥·법흥·법흥 등은 금강산에서 수행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사찰은 폐허가 되고, 현재는 정양사, 표훈사, 보덕암 등의 일부 담부와 삼불암, 묘길상 등의 마애불상이 남아있을 뿐이다.